



29일(한국시간)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타코마골프장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열린 대회 US 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크리스틴 박이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US여자주니어골프 한국계 3년 연속 우승

크리스틴 박 바네코 꺾고 정상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관하는 미국 최고 권위의 주니어골프대회인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를 한국계 선수가 3년 연속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29일(한국시간)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타코마골프장(파72·6천363야드)에서 36홀 매치플레이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크리스틴 박(14)이 일본계 아야코 가네코(17)를 4홀 차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부모 사이에 태어난 크리스틴 박이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2005년 김인경(19), 지난해 제니 신(15·한국이름 신지은) 등 3년 연속 한국계 선수의 우승이 이어졌다.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서 1999년 송아리(20·하이마트)가 최연소 우승(13세3개월) 기록을 세운 이후 9년 동안 2002년 박인비(19), 2003년 이숙진(20) 등 모두 6명의 한국계 챔피언이 탄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끔찍한 하루였다”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 3라운드 12오버파 69위 추락

‘천만달러의 소녀’에서 ‘기권소녀’로 전락한 위성미(18·미국 이름 미셸 위)가 부활의 조짐도 잠시 뿐 다시 나락으로 추락해 슬럼프의 장기화가 굳어질 전망이다. 위성미는 29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마스터스 3라운드에서 12오버파 84타를 쳐 72명 가운데 69위로 떨어졌다. 1라운드 1오버파 73타에 이어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때려 25라운드 연속 오버파 행진

에 마침표를 찍으며 활짝 웃었던 위성미의 얼굴은 다시 구겨졌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고 핀 위치가 까다로워 많은 선수들이 고전한 3라운드였지만 위성미의 플레이는 최악이었다. 72명 가운데 9명이 80대 타수를 기록한 이날 위성미는 최다 타수를 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자신의 스윙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 6월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에서 위성미는 1라운드 73타, 2라운드 74타를 치며 컷을 통과했지만 3라운드에서 83타, 최종 라운드에서는 79타로 무너져 꼴찌로 추락했다.

당시 위성미는 1, 2라운드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지 않았고 번트를 대다시피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한 끝에 간신히 컷오프를 면했다. 하지만 드라이버를 꺼낸 뒤엔 재앙은 다시 시작됐다. 파3홀을 제외한 14개 홀에서 티샷이 페어웨이에 떨어진 것은 고작 3차례 뿐이었고 18개홀에서 정구타수 만에 볼을 그린에 올린 것도 5차례에 불과했다. 바디는 단 한 개 밖에 잡아내지 못하고 더블보기 4개와 보기 5개를 쏟아냈다. 위성미는 경기를 마친 뒤 “끔찍한 하루였다”면서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 라운드가 남아 있지만 고장 난 드라이버샷이 하루 아침에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위성미는 “(바람 많은 하와이에서 골프를 배워) 바람도 별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다친 손목도 이제는 아프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스윙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이런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뜻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멀어진 ‘톱10’

PGA 캐나다오픈 3R 1언더 공동23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의 2주 연속 ‘톱10’ 입상 희망이 시들고 있다. 위창수는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킵의 엥거스글렌골프장(파71·6천946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캐나다오픈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공동23위(6언더파 207타)에 그쳤다. 전날 공동20위에서 순위가 더 떨어진 위창수는 공동7위 그룹에 불과 2타 밖에 뒤지지 않았지만 공동7위가 7명, 1타 앞선 공동14위에 9명이 몰려 있어 ‘톱10’ 진입을 낙

관할 수 없는 처지. 더구나 공동23위 4명, 공동27위(5언더파 208타)도 6명이나 포진해 있어 최종 라운드에서 적어도 3~4타는 줄여야 ‘톱10’ 진입을 바라볼 수 있다. 세계랭킹 7위 비제이 싱(피지)은 3언더파 68타를 쳐 단독 선두(12언더파 201타)로 뛰어 올랐고 2라운드 공동선두였던 스티브 앨런(호주)과 존 맬링거(미국)는 1타 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1타 차 공동2위로 내려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0일(월)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13:00~17:00) SBS스포츠

▲제21회 전국 시도대학장사 씨름대회(14:00~KBSN Sports) ▲아시아 주니어 탁구선수권대회(14:50~KBS2)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LA에인절스)(08:55~Xports)



고난도 로프연기

29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팬아메리칸게임 여자 리듬체조에서 캐나다 스테파니 캐루가 로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KIA 한기주·장성호 기자단 선정 ‘6월 MVP’

KIA타이거즈 투수 한기주(20·왼쪽 두번째)와 내야수 장성호(30·왼쪽 네번째)가 각각 ‘밝은안과21’과 광주는행이 시상하고, 광주지역 프로야구 기자단이 선정하는 6월 월간 MVP에 선정됐다. 장성호는 6월 한 달간 80타수 30안타 9타점 2홈런 타율 0.375를 기록했고, 한기주도 같은 기간 동안 4세이브 방어율 0.00으로 완벽투를 선보였다. 한편 시상금으로 100만원씩을 받은 장성호와 한기주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각각 50만원을 기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병현 친정 콜로라도 상대 통산 50승 도전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이 친정팀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미국 진출 후 개인통산 50승 사냥에 다시 도전한다. 김병현은 다음 달 2일 오전 8시55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돌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1999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8년 만에 통산 50승 고지 정복에 단 1승만을 남겨둔 김병현(5승5패·평균자책점 4.72)이 시즌 6승과 50승 달성을 동시에

노리는 것. 50승 사냥의 제물로 삼을 팀은 공교롭게도 자신을 내친 콜로라도다. 김병현은 올 시즌 초반 콜로라도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10.50의 부진과 손가락 부상까지 겹쳐 선발로 테이션에서 제외되자 트레이드를 자청해 5월14일 볼렌 투수 호르헤 훌리오(28)와 유니폼을 바꿔 입으며 플로리다로 이적했다. 콜로라도는 김병현 선발 맞대결 상대로 유안 조시 포그(31)를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1년 아시안컵 축구 카타르서 열린다

카타르가 2011년에 열린 제15회 아시안컵 축구 본선대회 개최국으로 확정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07 아시안컵 결승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집행위원회를 갖고 카타르가 2011년 대회 유치국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카타르 출신인 모하메드 빈 할람 AFC 회장은 “카타르가 매우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2011년 아시안컵 유치 의사를 밝혔던 이란과 인도가 지난 달 유치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카타르는 그동안 단독 후보로 지내 왔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핵심요약정리+단원별문제풀이(7월, 8월) 실전(동형)모의고사문제풀이(개강 9월3일)
개강 8월 1일 (주,야) www.gjserom.com
공인중개사전문! 전국합격을 1위!
새 품 행정고시학원 본원 361-8111 새 품 공인중개사전문학원 본원 529-8111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개월~10월28일, 주택관리사 12개월~10월21일, 주택관리사 2차(회계포함)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모집대상: 졸업도중 또는 졸업후 1년 이내에 1차시험에 응시한 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인 분, 40세 이상인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분, 전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임금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액제 모집, 수료후 100~80% 환급
접수: 온라인상담,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수강료: 온라인상담, 훈련수강신청서 작성, 훈련기관에 제출, 수강
수업시간: 월수금 19:00~21:00(기초) ▶ 화목 19:00~21:00(기초)
노동부직접 직업능력개발훈련사실
현대 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7·9급 공무원 대특강
일세무직 2700명 공채 9월6일 시행(1200명 모집) (사상초우) 2차 내년초(1500명 모집) 대모집
주 야반모집 개강 8월 1일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www.mdgosi.co.kr 222-4560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지리산한약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NAVER 검색창에 지리산한약방 을 쳐보세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지리산한약방

김영면임·PMS학원
여성방학 편입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www.kimyong.co.kr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